

청림의 맛

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은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의례적으로 '촌지'를 보내는 시절이었다.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담임 선생님에게 우리 귀한 자식 잘 가르쳐 달라는 의미로 '작은 정성'을 보내는 것이다. 여느 영화처럼 선생님이 대놓고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발적으로 이 '작은 정성'을 준비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을 교탁 위에 진열해 놓고 누구 집에서 어떤 선물을 보내왔는지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엄마는 여동생과 나를 동네 속옷 가게에 데리고 갔다.

"그 선생님은 키가 엄마보다 더 크더냐?"

"아니 크진 않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럼 엄마보다 말랐어, 아니면 살집이 더 있는 편이여?"

"에이, 우리 선생님이 더 날씬하지!"

엄마는 항상 본인 기준으로 선생님의 키가 자기보다 큰지, 작은지, 몸매는 더 말랐는지, 아니면 살집이 더 있는지를 물어봤다. 그러곤 우리 대답으로 사이즈를 가늠해 맞을 법한 내복 두 벌을 사서 포장해 달라고 했다. 네모지고 가벼운 그 선물을 가지고 학교에 가면 교탁 위에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보석이 가득 박힌 나비 집게 핀, 예쁜 펜던트가 달린 금목걸이, 팔찌, 그리고 세련된 백화점 봉투 따위가 올려져 있었다. 그럼 나는 거의 맨 나중에 나가서 교탁 끄트머리에 내복과 함께 손편지를 끼워 놓고 들어오곤 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엄마 나 반장 선거 나가 볼까?”

“반장?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 해봐.”

“근데 반장 되면 반에 햄버거 돌려야 하는데.”

엄마는 의아한 표정으로 반장을 하는데 햄버거를 왜 돌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반장이 되면 원래 다들 하는 거라고 말했다. 실제로 반장 선거 후보자들의 유세는 물질적 공약이 대부분이었고 그에 따라 반장이 정해지곤 했다. 선거 공약으로 햄버거를 걸었다면 그 선거는 따 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외에도 반장 엄마들은 학교 행사 때마다 보내야 하는 게 많았다.

“반장 그거 나중에 허라. 공부만 잘하든 되제...”

엄마는 약간 풀이 죽은 말투로 나를 다독였다. 나도 더는 말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엄마의 대답을 알면서도 물어본 것이었다. 그 뒤로 내가 반장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그해 스승의 날에도 어김없이 내 손에는 내복 한 벌이 들려 있었다.

장녀인 내가 중학교에 입학한 것은 우리 집에 새로운 변화였다. 새로이 교복을 맞추고 시장에서 교칙에 맞는 책가방과 단화도 구입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잘랐다. 하나씩 준비물이 갖춰질 때마다 장사할 때 요긴하게 쓰이는 엄마의 복대는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다.

사건은 입학식 후, 반 배정을 마친 이튿날 생겼다. 담임 선생님이 반장 선거를 제안하며 지금까지 반장을 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손을 들고 했다. 그리 많지 않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그중에는 나도 포함돼 있었다. 선생님은 이번 학기 반장을 이 중에서 뽑자고 제안했고 얼떨결에 앞으로 나가 반장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발표했다. 반장 선거에 나가면 어떤 말을 할지 수없이 생각해 봤던 터라 막힘없이 말을 이어 나갔다. 그리고 그 덕분에 반장으로 당선됐다. 학우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엄마한테 말해야 하는 건 둘째치고 우리 반만 간식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다.

그날 저녁 집에서 엄마에겐 별일 아닌 듯 “나 반장 됐어.”라고 말하곤 “그냥 시켜서 하게 됐어. 별거 아냐.”라고 덧붙였다. 이 말의 뜻은 엄마가 괜히 부담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당선되면 뭘 사겠다는 공약은 하지 않았는데 뽑혔다고 한 번 더 강조했고 엄마는 내 말을 듣고 그냥 “알었다.”라고만 했다. 나는 이 말로 엄마가 내 뜻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체육대회가 있었다. 앞장서 목이 쉬어라 응원가도 부르며 일 년에 몇 번 없는 수업 없는 날을 만끽하고 다 같이 교실에 모여 종례를 하던 중 담임 선생님께서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 나갔다.

“얼마 전 몇몇 학부모님께서 선생님들에게 봉투를 주셨어요. 체육대회 준비하느라고 생한 학급 선생님들께 드리는 거라고 하셨지만 1학년 담임 선생님들과 회의한 결과 봉투는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적잖이 놀랐다. 학부모가 보내온 ‘작은 정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선생님도 처음이었지만, 이걸 받을 수 없어 돌려주겠다고 한 선생님도 처음이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각자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 드

리고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학교 임직원들은 학부모에게 돈이나 선물은 일절 받지 않고,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우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도록 하세요.”

약간의 웅성거림과 함께 종례를 마쳤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이 사실을 곧장 얘기했다. 이상하리만큼 가만히 내 말을 듣고 있던 엄마는 항상 차고 다니는 복대 가방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위에는 빼놓은 엄마 글씨체로 '김인혜 엄마'라고 쓰여 있었다.

“이것이 돌아왔시아. 얼마 넣지도 않았는데....”

나는 두 눈이 커지고 어안이 병병해졌다. 아까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말한 학부모가 우리 엄마였다니. 지금까지 내가 겪은 엄마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학급 반장인 터라 학생회 학부모 모임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모임에 나가 본 적은 없었고, 거기서 체육대회 날 선생님들 회식비 명목으로 각출해 전달하자는 말이 나와 엄마는 10만 원을 보탤다고 했다. 그 당시 한 달 치 학원비가 8만 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엄마에게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다.

“그래도 명색이 네가 반장인데 엄마가 뭐라도 해야 안 하나 했제.”

엄마는 내가 반장인 것이 한껏 자랑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렇게 자랑스러워 할 일인가 싶으면서 한편으로 내가 반장 선거에 나간다고 했을 때, '다음에'라고 말하던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 상상했다.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엄마에게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 교탁 위에 수줍게 내복을 내밀던 그때의 나와는 다르게 한껏 당당한 태도였다. 선생님이 돌려보낸 하얀 봉투와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고 말하는 선생님의 야무진 눈빛이 나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날 엄마는 저녁상을 차리는 대신 피자를 주문했다. 우리가 사달라고 졸라도 잘 사주지 않던 피자였다. 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배달되어 온 따끈한 피자를 맛있게도 먹었다. 아빠도 오늘 무슨 날이냐고 물었지만, 엄마와 나는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이었다. 그날 먹은 피자는 유난히도 따뜻하고 달콤했다.

내가 기억하는 '청렴의 맛'은 '따뜻한 맛'이다. 누군가에겐 사소한 행동이거나 혹은 나 하나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렴한 행동은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관행이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혹은 관심이 없어서 묵시하는 우리 일상의 작은 부패들은 누군가에겐 좌절과 상처가 된다. 단언컨대 사소한 청렴, 나 혼자만의 청렴은 존재할 수 없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날 선생님의 총명한 눈빛과 따뜻한 피자 맛을 떠올려본다. 훗날 나도 누군가의 '따뜻한 맛'으로 기억되길 바라며.